

단정한 목조교사, 실용적 신학문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부합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2

보성전문 초기: 수송동의 한옥과 목조교사 1905~1918

고려대학교, 모교의 이름에 우리는 자연스레 고딕풍의 석조건축물을 떠올린다. 그렇다, 석탑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이 처음부터 고딕의 석조 건축과 함께했던 것은 아니다.

안암동 본관이 완공된 때는 1934년 9월. 허먼 개교 후 그때까지 보성전문은 어떤 건축적 환경 가운데 성장해왔을까? 이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보성전문의 설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창기 선배들은 안암동 이주 전 30년에 가까운 기간, 서울 종로구 일대의 몇몇 건물을 거쳐 오게 된다. 이젠 그 자취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가져보자. 시작은 전통 한옥이었다.

전 러시아어학교의 한옥교사 1905~1914

익히 알다시피 사립보성전문학교(私立普成專門學校)는 1905년 4월 3일, 대한제국의 내장원 경인 충숙공 이용익에 의해 설립됐다. 그는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를 구할 길이 교육에 있다는 '교육구국'의 꿈을 품고 전문·중학·소학의 대교육체계안을 마련했고, 고종황제는 이에 기뻐하며 '넓을 보(普), 이를 성(成), 널리 이룬다'는 교명을 하사한다. 이에 따라 보성전문과 함께 보성소학교가 개교했으며, 이듬해 9월에는 보성중학교도 문을 열었다.

보성전문의 첫 교사(校舍)는 지금의 조계사 옆인 종로구 수송동 46번지, 즉 당시의 박동(磻洞) 10통 1호에 있던 전 러시아어학교였다. 이 학교는 외국어학교관제에 의해 1896년 설립됐다가 1904년 러일전쟁 후 폐교했는데, 보성학교가 이를 사용한 것이다.

당시의 학교 건물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개교 초기의 것으로 짐작되는 사진이 한 장 남아있을 뿐이다. 이 사진은 전 러시아어학교 건물이 전형적인 한옥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학교가 모두 몇 채의 건물로 구성됐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사진에 나타난 건물의 지붕은 처마 끝이 모호해 팔작지붕인지 맞배지붕인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건물의 몸체는 정면 세칸의 소규모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비해 마당은 상대적으로 넓

었던 것 같다. 따라서 좁은 실내에 비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진은 학교가 대규모 모임 시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진행했음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 첫 해인 1905년, 보성전문에만도 법률학전문과와 이재학(경제학)전문과를 중심으로 1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재학했으니(《皇城新聞》, 1905.5.31), 그 공간은 상당히 협소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1906년의 창립 1주년 기념식이나 이듬해 거행된 제1회 졸업식 등 이후의 큰 행사는 교외의 적절한 장소를 활용해야만 했다.

한편, 보성중학교 개교 두 달 전인 1906년 7월, 보성학원은 이 건물과 이웃한 가옥 200여 칸을 매입해 교사를 확장한다(《普成80年史》, 1986). 보성전문 및 소학교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보성중학교 1회 입학생 246명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성전문은 더 큰 울타리 속에서 소학교·중학교와 함께 생활해 나가게 된다.

수송동 목조 신축교사 1914~1918

1910년 한일 강제합병으로 크게 악화된 보성전문의 경영상황은 의암 손병희 선생과 천도교 측이 그해 12월 학교를 인수함으로써 타개됐다. 이후 학생 수가 더욱 증가해 기존의 건물만으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결국 보성학원은 구교사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을 결정했다.

2층의 목조 양옥으로 계획된 신교사는 1914년 6월 건축을 시작해 10월 말 완공됐다. 《매일신보》(1914.10.31)는 이 건물의 웅장함[巍然]을 담 무리 가운데 우뚝 선 학의 위상[鷄群鶴立]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때의 보성중학교 교장 최린의 말을 인용했다.

“지금까지의 본교 교사는 원래 교사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건축한 것을 일부 개수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점이 많았고 교육상에도 다소의 불편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거액의 경비를 들여 교사를 신축하였는데, 오늘 낙성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규모가 상당했음은 당시



보전 최초 교사인 수송동 전 러시아어학교 건물. 전형적 한옥으로 세 칸 정도의 소규모로 파악된다. 따라서 제1회 졸업식 등 큰 행사는 교외의 적절한 장소를 활용해야 했다.



천도교에서 보전을 인수한 후 신축한 목조교사(정면에 보이는 2층 건물). 당시 《매일신보》에서 “담 무리 가운데 우뚝 선 학의 위상”이라고 묘사한 신축 교사가 목조로 지어진 것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수송동 교사 운동장을 찍은 사진엽서. 고대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보전 초창기의 물리적 공간을 통해 이미 확인된다.

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무엇보다 신축교사는 그 앞에 넓은 운동장을 확보했고 주변의 구조물에 비해 우뚝 솟았다. 건물 앞 사람들과 견주면 1층의 높이가 성인키의 2~3배가 족히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모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도입된 서양식 목조 건축 타입이다. 특히 모서리를 비롯한 프레임에 구별된 목재를 사용하고 그 사이를 수평 비늘벽으로 처리한 점은 미국식 콜로니얼 양식에 자주 나타나는 요소다. 그리고 건물 정면으로 판단컨대 평면은 좌우대칭의 ㄷ-자 형태이며, 정중앙의 출입구와 지붕 박공면 및 굴뚝이 대칭성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주의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당시 멀지 않은 거리에 현존하던 명동성당(1898년)이나 대한의원(1907년), 조선은행(1912년) 등

의 건물에 비해 기념비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화려한 치장 없이 목조로 단정히 교사를 건축한 것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게다. 이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선택은 실용적 신학문을 추구하는 근대교육기관의 성격과도 부합된다.

목조교사 한쪽 앞에는 보성학교 출판사였던 보성사(普成社)가 벽돌조 2층 건물로 자리하고 있다. 3·1운동 시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바로 그 보성사다. 보성학원의 전문학·중학·소학교가 보성사와 함께 동지를 틀고 있음은 교문의 명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수송동 시대 후기의 사진이 보여주듯 이때의 보성전문은 일제에 의해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강등됐으며, 중학교와 소학교도 각각 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와 사

립보성초등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교문은 중앙의 넓은 문과 양측의 좁은 문으로 구분된다. 문 옆 부속건물이 서양식의 본관과 달리 전통 기와지붕을 가진 점이 눈에 띄는데, 이와 대비되는 담장 밖 게시판의 단출한 지붕도 흥미롭다.

운동장은 넓었던 만큼 다양한 체육행사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체력단련이 지식의 함양 못지않게 중시됐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체육활동을 촬영한 사진은 여럿 남아 있다. 고려대학교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보성전문 초창기의 물리적 공간 가운데서도 이미 확증된 셈이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